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, 전월비 하락.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증가
 - 연준 주요 인사,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, 암호화폐 위험성도 거론
 - 중국 10월 소매매출, 예상치 하회. 향후 경제성장도 부진할 가능성
 - 일본 3/4분기 성장률, 1년만에 역성장. 글로벌 경기둔화와 엔화 약세 등이 영향
 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주가 상승[+0.9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하락[-9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10월 생산자물가 결과가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
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관련주 강세 등으로 0.4%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
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2%, 0.5% 상승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예상 등으로 6주래 최저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하락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5.9원, -1.8원) 0.1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11/15일	11/14일	전일대비			11/15일	11/1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91.7	3,957.3	0.87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7%	3.85%	-9bp
	유럽	434.44	432.86	0.37%		독일	2.11%	2.15%	-4bp
	중국	3,134.1	3,083.4	1.64%		영국	3.30%	3.37%	-7bp
	일본	27,990	27,963	0.10%	CDS 5y	한국	54bp	53bp	1bp
	한국	2,480.3	2,474.7	0.23%		중국	76bp	75bp	1bp
	달러지수	106.50	106.66	-0.15%	위험 지표	EMBI+	-	405	-
유로화	1.0348	1.0327	0.20%	VIX		24.54	23.73	3.41%	
환율	엔화	139.25	139.89	0.46%		WTI유	86.92	85.87	1.22%
	위안화	7.0455	7.0690	0.33%	원자재	구리	382.4	383.4	-0.25%
	원화	1,317.6	1,325.9	0.63%		금	1,778.7	1,771.4	0.4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, 전월비 하락.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증가

- 10월 생산자물가(PPI)의 연간 상승률은 8.0%로 전월(8.4%) 및 예상치(8.3%) 하회. 월간 상승률도 0.2%로 전월(0.2%)과 동일했으나 예상치(0.5%) 대비로는 낮은 수준. 근원 PPI의 연간 상승률 역시 전월에 비해 하락(7.1%→6.7%)했고, 월간 상승률도 전월과 비교하여 둔화(0.2%→0.0%)
- 이번 결과는 공급망 차질 개선, 원자재 가격 하락, 수요 둔화 등에 기인.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특히 제품 부문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(Bloomberg Economics의 Eliza Winger)
- 그 동안 강력하게 진행되었던 금리인상이 변곡점에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. 인플레이션 지표 개선 흐름이 향후에도 계속된다면,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(High Frequency Economics의 Rubeela Farooqi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주요 인사,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. 암호화폐 위험성도 거론

-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충분히 제약적인 조치를 통한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이라고 발언. 또한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부연
- 필라델피아 연은의 하커 총재는 현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평가. 다만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금리가 제약적이면 금리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첨언. 연준의 쿡 이사는 인플레이션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물가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의견을 피력
- 한편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은 암호화폐 등 비은행 부문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. 이들 부문은 투명도가 낮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금융시스템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. 또한 채권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도 지적

■ 미국 뉴욕 연은, 3/4분기 가계대출 증가. 물가상승과 수요 증가 등에 기인

- 3/4분기 가계대출은 2/4분기(16.51조달러) 이후 3510억달러 증가. 다만 전문가들은 양호한 고용여건 등으로 가계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

■ IMF 총재,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촉구

-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보호무역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세계경제의 분절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성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. 이에 각국의 지도자들은 무역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

■ 독일 11월 ZEW 경기기대지수, 예상치 상회.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등이 반영

- 11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-36.7을 나타내 전월(-59.2) 및 예상치(-50.0) 대비 높은 수준.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등에 기인. 당초 예상과 같은 강한 통화긴축도 불필요할 전망(ZEW의 Achim Wambach)

■ 중국 10월 소매매출, 예상치 하회. 향후 경제성장도 부진할 가능성

- 10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0.5% 감소하여 예상치(1.0%) 대비 부진. 10월초 연휴에도 불구하고 소매매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. 한편 10월 고정자산투자 역시 전년동월비 5.8% 늘어 9월(5.9%) 대비 낮은 수준
- 부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당국은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을 필요.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성장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(Jones Lang Lasalle의 Bruce Pang)

■ 중국 인민은행, 중기유동성지원창구(MLF) 금리 동결. 환율 안정 고려

- 8500억위안 규모의 1년 만기 MLF 대출금리를 2.75%로 유지.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위안화 약세 방지를 위해 금리인하를 보류했다고 평가. 환율 안정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주요 원인으로 작용(Dongfang Jincheng의 Wang Qing)

■ 일본 3/4분기 성장률, 1년만에 역성장. 글로벌 경기둔화와 엔화 약세 등이 영향

- 3/4분기 성장률(전기비)은 -0.3%를 기록. 이번 결과는 글로벌 경기둔화, 높은 인플레이션,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에 기인. 세부항목 가운데 민간소비(전기비 증가율: 1.2%→0.3%) 등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1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: 4.5, 10월(-9.1), 예상치(-5.0)
- 유로존 3/4분기 성장률(전기비, 확정치): 0.2%, 2/4분기(0.8%), 속보치(0.2%)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주요국 중앙은행, 부정적 경제전망으로 금리인상 폭 조정 예상 - Financial Times

(Central banks to shift away from 'jumbo' interest rate rises as outlook darkens)

- 시장에서는 미국 외에 유럽, 호주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동시에 경기침체 위협에 대응하여 통화긴축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. 이에 2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이 금리인상 속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
- 아울러 최근 주요 정책금리의 균형 또는 중립 수준 근접과 전세계 소비자 및 기업의 경제활동 둔화도 또 다른 이유. 연준 파월 의장이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, 최근의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통화긴축 강도는 결국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

■ 암호화폐 시장, FTX 사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 - Financial Times

(FTX/bitcoin: contagion risk is not fully reflected in prices)

- FTX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투자자들은 여타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인출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싱가포르 암호화폐 업체 Crypto.com 불안도 뒤이어 대두. 그러나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편
- 그러나 비트코인이 이번 사태와 단절되어 덜 위험하다고 안심하기는 어려운 편. 시장에서는 기술적 저항선 혹은 알 수 없는 요인이 가격을 지지한다고 평가
- 그러나 암호화폐에 긍정적 시각을 가진 투자자나 간접 투자에 나서는 전통적 투자자 모두 추가 매수에 소극적.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

■ 중국 국채시장,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- 블룸버그

(Global Exodus From China Bonds Extends Amid Post-Congress Rout)

-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9월 및 10월 은행 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보유액은 각각 700억위안, 265억위안 감소. 또한 지난 10개월 동안 채권시장 자금유출액은 6000억위안 상회
- 이는 10월 말 20차 당대회 이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고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대규모 유출되었던 움직임과 유사한 모습. 다만 최근 당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지원 정책 발표 등으로 투자심리는 다소 회복
- 증시에서는 내년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유입이 예상. 하지만 채권시장은 정책 사이클 비동조화 영향 등으로 '25년 이후에 자본유입이 가능할 전망(Morgan Stanley)

- **중국 시진핑 주석, 코로나부동산 관련 입장 선회. 실무진의 수용 속도가 중요 - 블룸버그**
(Xi Pivots Fast on Covid and Property. Will His Cadres Listen?)
 - 중국의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내러티브가 빠르게 변화.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‘중위험’ 단계 폐지, 밀접접촉자의 밀접 접촉 추적 중단, 확진자 다수 발생 항공편 운행 중단 폐지를 발표하는 등 규제를 완화
 - 부동산 측면에서도 2년간 시행되었던 긴축 조치를 대부분 철회하고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민간 부동산 개발을 국영 개발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지시
 - 하지만 6월 베이징의 입국자 자가격리일 축소 시에도 실무진들이 이보다 장기간의 자가 격리를 강제한 사례가 존재. 실무진이 확진 급증 및 채무불이행 리스크 우려로 지도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급격히 감소할 소지
- **미국 10월 생산자물가 상승세 둔화, 기업의 이익률 증가는 기대난 - 블룸버그**
(Easing Wholesale Prices Won't Pad Profit Margins)
- **미국 모기지 금리 상승, 연준과 은행권의 모기지증권 매입 축소 등에 기인 - WSJ**
(Mortgage Rates Are High Because Nobody Is Buying Mortgages)
- **중국의 새로운 성장둔화 징후, 세계경제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반증 - WSJ**
(China's Economy Takes a Deeper Hit as Retail Sales Turn Negative)
- **중국의 디플레이션, 실질부채 및 자본조달 비용 부담 가중될 우려 - Financial Times**
(While the world fights inflation, China's problem is deflation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